**염화실 그림자** 여천 무비(如天 無比) 지음
염화실 펴냄 | 1만원

무비스님이 인터넷과 여러 법회를 통해 주창해온 '모든 사람이 부처다'라는 인불사상(人佛思想)에 대한 조사와 경전의 설명이 잘 깃들여져 있다. 염화실 법향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받들어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전한다. 우리네 삶을 되짚어 보고 행복한 삶으로 가꾸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책.

**줄 없는 거문고 –죽비 · 竹篦**
박현광 편저 | 학수림 펴냄 | 1만원

현대인은 불교가 우리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려있지만 어렵다고만 한다. 불광사 현광스님은 기초교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조상의 마음을 일깨우고 생활의 지표가 될 수 있었던 힘을 설명한다. 불교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이를 위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책이다.

**미얀마 산책** 크리스틴 조디스 지음
고영자 옮김 | 대숲바람 펴냄 | 1만5000원

미얀마 사람들이 억압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작가는 미얀마를 세 번이나 여행하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의 발원지를 불교에서 찾아낸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불탑들, 이라와디강 주변 풍경의 세밀한 묘사와 미소를 함께 느껴보자.

**거대한 일상**
백무산 지음 | 창비 펴냄 | 7000원

'노동자 시인'으로 불려온 백무산이 인간을 둘러싼 삶의 조건을 선(禪)적 시세계로 확장했다. 화장터, 운주사, 감은사지에서 노래하는 시를 통해 치욕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일상을 직시하고 노동의 현실을 새롭게 각성하는 고백을 담은 시들은 단연 압권이다.

**뜨거운 물 단식의 기적**
김종수 지음 | 정신세계원 펴냄 | 1만3000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강법으로 뜨거운 물 단식과 함께하는 기림산방 7대 건강 수행법과 생로병사의 원리를 밝힌다. 저자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건강 메시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황금똥에 대한 삼매**
고영섭 시집 | 연기사 펴냄 | 8000원

'냄새 곱고 빛깔 누런 똥을 누는 삶!'을 꿈꾸는 시인 고영섭. 그의 시적 의단은 '몸'과 '물'을 거쳐 '똥'에 이르렀다. 문명의 찌꺼기인 '문자똥'의 비실체성에 집중하며 뽑아낸 그의 언어가 향기롭다.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2 |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월호 | 불광출판사 |
| 3 | 인과경 | 현담 | 선 |
| 4 |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 과경 | 불광출판사 |
| 5 |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 월호 | 운주사 |
| 6 |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 원철 | 뜰 |
| 7 | 이와 같이 살았으면 | 무비 | 염화실 |
| 8 |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법정 | 조화로운 삶 |
| 9 |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 김재성 | 아름미디어 |
| 10 |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 법륜 | 정토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 원택 스님 엮음 | 김영사 펴냄 | 1만2000원

# 성철 스님 수행기의 완결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는 없을까?"

단 하나의 화두를 들어 스스로 정진해 스스로 깨우치신 분, 성철 스님(조계종 前 종정 · 1912~1993) 흔적을 쫓아 화엄종찰 해인사에서 느릿느릿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갈듯 평온한 곳에 고즈넉한 백련암이 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을 지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인데 태양은 붉은 빛을 토해 푸른 산에 걸렸다'고 하신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주련으로 남아 스님의 오롯한 정신을 되새기게 한다.

성철스님문도회(회장 천제)는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반 15주기를 맞은 10월 18일(음력 9월 21일) 추모 7일철야 8만4000배 참회법회를 백련암에서 회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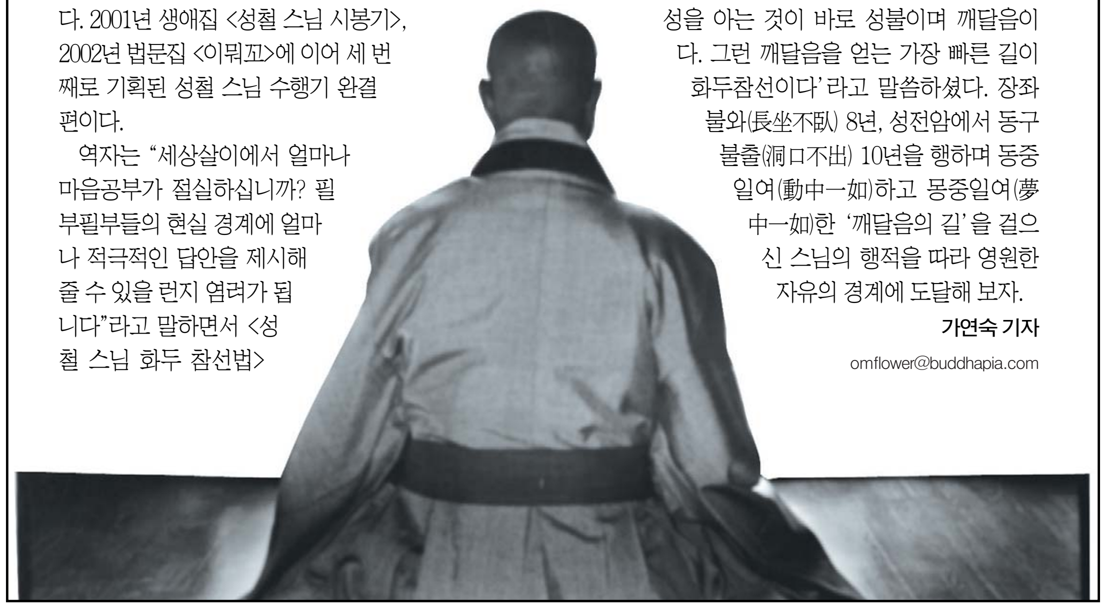
이에 맞춰 성철 스님 곁에서 20여 년 동안 시봉해온 원택 스님(해인사 백련암 감원 ·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성철 스님의 평생 가르침 '화두참선'을 집대성해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을 발간했다. 2001년 생애집 <성철 스님 시봉기>, 2002년 법문집 <이뭐꼬>에 이어 세 번째로 기획된 성철 스님 수행기 완결편이다.

역자는 "세상살이에서 얼마나 마음공부가 절실하십니까? 필부필부들의 현실 경계에 얼마나 적극적인 답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런지 염려가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이 살아생전 스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살리되 초보 수행자들도 쉽게 참선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적멸의 고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은 '화두'라는 참구법으로 화두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과 참구의 관문 그리고 참선 중에 만나는 병폐와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의 기준과 조사스님의 말씀을 담아 선 수행자들의 지표가 되도록 한다. 가야산의 메아리로 생생하게 살아 있는 성철 스님의 참된 가르침은 '참선하는 법'을 주제로 한 육성 법문 CD와 함께 덧붙여져 실제 곁에 계신 선지식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역자는 "참선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큰스님이 계실 때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지도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 큰스님이 남기신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성철 스님 화두 참선법>을 엮은 의도를 전했다.

성철 스님은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아는 것이 바로 성불이며 깨달음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 화두참선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장좌불와(長坐不臥) 8년, 성전암에서 동구불출(洞口不出) 10년을 행하며 동중일여(動中一如)하고 몽중일여(夢中一如)한 '깨달음의 길'을 걸으신 스님의 행적을 따라 영원한 자유의 경계에 도달해 보자.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는 실천지침

**자비의 명상**
법안 스님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원

누구나 잘 살고자, 행복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까? 불교방송에서 1분 법문을 진행하고 있는 법안 스님이 그 길을 제시한다. <자비의 명상>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그러나 인류의 미래에도 계속될 이 물음을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소개한다.

편저자 법안 스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물질적 장치들을 만들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안을 더욱 부채질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한다.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에 유독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대한 통찰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스님은 이 시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돌아본다. 무한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는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함께 기대며 가야 할 존재들인 가족이나 동료, 이웃을 오직 경쟁의 대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용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스님은 "내가 준다, 내가 베푼다, 이런 조건적인 생각은 장사하는 이들의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다"라고 충고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스님의 대답은 간단하다.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라"는 것이다. 스님은 " '관세음보살'을 늘 염송하면서 자꾸 무엇을 주십사, 빌기만 했지 내가 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꼬집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처럼 대자대비를 베풀자"고 실천행을 제시한다.

이 책은 <숫타니파타>의 제143~152 게송, 흔히 <자비경>이라 불리는 10개의 게송을 중심으로 부처님 말씀 30개를 명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일상의 번잡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관무량수경>에 있는 관법명상을 함께 실었다. 스님은 "<자비경> 한 송을 염송하고 부처님 말씀 30개를 명상하다 보면 훌쩍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나은 기자**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8>

# "49년 동안 설법의 수레 굴리셨네"

이렇듯 필발라굴(畢鉢羅窟)에서 500명의 대아라한(大阿羅漢)이 모여 경전(經典)을 결집(結集)한 일을 후인들은 제1회결집(第一回結集), 또는 상좌부결집(上座部結集), 혹은 굴내결집(窟內結集)이라 한다. 따라서 이 결집(結集)이 이루어진 시기는 서력기원전(西曆紀元前)554년이라는 설(說)이 유력하고, 이때에 결집한 내용은 경(經)과 율(律), 이장(二藏)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결집에 앞서 아난에게 그토록 심한 시련(試鍊)을 안겨준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 모임에 모인 대중이나 송출(頌出)하는 이나 결집하는 절차(節次)가 모두 청정하고 여법(如法)해야 거기서 일궈낸 작품(作品)에도 믿음이 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아난존자에게는 평소 불미(不美)스러운 말들이 따라다녔던 터라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 듣는 이들의 마음에 양해(諒解)하는 심증이 생기게 함으로써 송출자(頌出者)의 자격에 흠(欠)이 없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 덕에 종이에 쓰거나 녹음(錄音)을 해 두지 않았어도 오늘까지 국경(國境)을 겹겹으로 넘으면서 번역(飜譯)하고 다듬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손실 없는 경전이 전해지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쉽게도 일설(一

## 아난의 시련은 공신력·절차의 공정성 의미
## 600년 사이 4차례 결집, 대소승 삼장 망라

說)에는 굴내결집(窟內結集)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비구(比丘)들이 따로 굴 밖에서 바사가(婆師迦)를 중심으로 법회를 열어, 경을 결집하니 그것을 굴외결집(窟外結集)이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통일(公論統一)은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 주기도 한다.

제1회결집(第一回結集)을 필두로, 불멸후(佛滅後) 100년 경에 야사(耶舍)라는 비구의 주선으로 비사리(毗舍離)지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십비사(十非事)라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칠백 비구가 모여 율장을 결집하니, 이를 제2회결집(第二回結集)이라 하고. 불멸후(佛滅後) 330년 경에 이루어진 제3회결집(第三回結集), 불멸후(佛滅後) 600년경에 이루어진 제4회결집(第四回結集) 도합 네 차례의 결집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 여러 차례의 결집에서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다시 말해 어떤 경론들이 어떤 각도로 어떻게 다루어졌을까.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이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한걸음 물러서서 제1회결집에서 어떤 경론들이 결집되었을까 정도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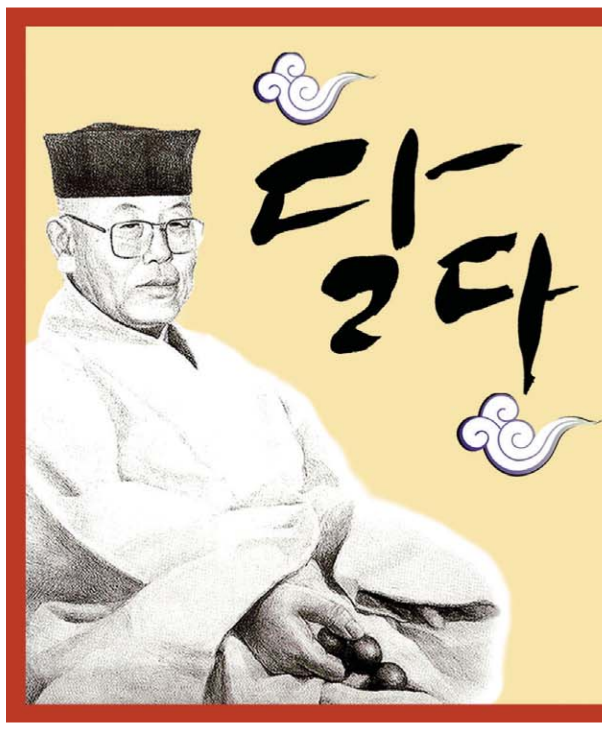
우선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대시교송(一代時教頌)이 전해지고 있다.

아함십이방등팔(阿含十二方等八) 아함을 12년 방등을 8년간 설하시고,
이십일재담반야(二十一載談般若) 21년 동안에는 반야부를 설하시고,
종담법화부팔년(終談法華復八年) 법화부를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설하시니,
전어사십구년설(轉於四十九年說) 49년 동안 설법의 수레를 굴리셨네.

이는 우리에게 전래(傳來)하는 이른바 구불기설(舊佛紀說)의 근거(根據)로서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하시다가 79세에 입멸하셨다는 내용(內容)이다. 구불기설의 줄거리는 부처님께서 주(周)소왕(昭王) 26년 갑인(甲寅) 4월 8일에 탄생하시니 서력기원전(西曆紀元前) 725년이요, 주(周) 목왕(穆王) 53년 임신(壬申) 2월 15일에 입적(入寂)하시니 서력기원전 656년으로써 현행 불기와는 483년의 차이가 생긴다.

어쨌든, 이 불기설(佛紀說)에 준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미 오부대경(五部大經)을 다 설하셨으니, 제1회 결집시에 결집된 경전의 범위는 대소승삼장을 총망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봉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 달다 〉!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달다 〉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